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위한 현장 방문**고금리 시대, 서민들은 더 힘듭니다.
서민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계부채대책팀'(팀장 송기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월 22일(수) 14시부터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민 대출금리 폭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고 한국은행 역시 오는 7월경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 서민 대출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리 상승 기조 하에서 금리를 낮춰주거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서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계부채대책팀'은 생계대출, 부동산 대출 등 서민금리 안정화를 위한 두 번째 행보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 지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일정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송기현 팀장을 비롯한 오기형(간사), 설훈, 박범계, 윤관석, 김종민, 위성곤, 유동수, 강준현, 김승원, 이용선, 정일영, 정필모(가나다 순) 의원 등이 참석하여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임원진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의 현재 수요, 약 48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진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문으로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확인·점검하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약속드린다.

2022. 6. 21.

[참고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안)

- 일시 및 장소 : 6월 22일(수) 14:00~15:00,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간담회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6층)
 - 행사주관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서민금융진흥원

○ 참석 대상자

- (당) 박홍근 원내대표, 송기현 정책위 수석부의장(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 오기형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간사), 설훈, 박범계, 윤관석, 김종민, 위성곤, 유동수, 강준현, 김승원, 이용선, 정일영, 정필모 (총 14인)
- (기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유재욱 경영혁신본부장, 김진휘 금융사업본부장 등

- 주요 내용 : 금리 상승 기조 하에서 서민 금융애로 해소 방안 마련 및 정책 지원 확인

○ 진행순서

※ 사회 : 심재철 기획조정부장

시간		소요 (분)	주요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4:00	14:05	5'	[센터 시찰] ▪ 서민금융진흥원 중앙통합지원센터 시찰 (약 5분 소요)	안내: 센터장	공개
14:05	14:15	10'	[참가자 모두 발언] ▪ 국민의례(약식) 및 참석자 소개 ▪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발언 ▪ 송기현 가계부채대책팀장 모두발언		
14:15	14:25	10'	[현황 브리핑] - 내용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현황 및 금리 상승 기조 하에 대한 대응 현황	발표: 서민금융 진흥원	비공개
14:25	14:55	30'	▪ 자유 토론		
14:55	15:00	5'	▪ 박홍근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